

기계공업 종사자의 작업복 착용 실태 조사 연구

김혜령·서미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기계공업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복의 착용도, 관리도 등을 조사하여 연령, 성별, 근무업종, 근무경력, 결혼여부, 학력, 월소득, 작업장 규모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작업복 개발에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계 공업 작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 책임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한 직접면담법과, 기계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지역의 기계공업 작업장 중 자동차 정비(카센타)작업장, 용접작업장, 선반 및 기계조립 작업장과, 기계 및 전기설계 작업장의 작업자를 중심으로 총 375부를 배부하여 333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분명한 69부를 제외한 264부를 본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ackage 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각 문항마다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배경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작업복 착용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는데는 크로스테이블레이션에 의한 χ^2 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현재 기계공업 종사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의 전반적인 착용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복의 형태는, 상·하의 부착형태 작업복과, 상·하의 분리형태 작업복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상·하의 부착형태는 주로 overall형태나 coverall형태였다. 상·하의 분리형태 작업복인 경우, 상의는 대부분 스포츠 칼라와 스텐칼라가 달린 점퍼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소매형태는 셔츠 슬리브에 소매여밈은 커프스와 매직 테이프로 처리하였고, 상의의 여밈 방법은 지퍼처리와 단추로 되어져 있었다. 하의는 다소 여유있는 바지형태로, 옆솔기선에 패치포켓, 프론트 힙 포켓이 달린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작업복의 색상으로는, 짙은 감색(inkblue)과 dark navy, kahaky, dark beige 등이 많았다. 작업복의 소재로는, 폴리에스테르 100%가 제일 많았고, 폴리에스테르와 면이 혼방된 소재로 된 경우도 다소 있었다.

2. 작업복의 착용도를 보면, 작업복 착용의 필요성에 있어서, 기계공업 종사자들은 작업시 작업복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작업복의 착용목적은 작업의 안전 및 능률 향상을 위해서와 작업장의 오염으로 부

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업복 수량은 2벌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90%이상이었으며,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 형태로는 상·하의 분리형태가 75%, 상·하의 부착형태가 23.5%였다.

작업시 작업복의 착용 여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작업시 작업복을 항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작업복 착용도는 근무업종과 작업복의 필요성과의 관계에서는, 자동차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용접과, 선반 및 기계조립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업종에 따라 작업복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근무 경력과 작업복 필요성에 대해서는, 5년~10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작업자들이 작업복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1일 근무시간과 작업복의 필요성을 보면, 1일 평균 8시간~11시간 미만의 근무자들이 작업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작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이 소규모 작업장과 50명~100명 미만의 작업장에서 작업복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작업복의 착용목적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40세 이하의 경우, 안전 및 능률향상을 위함이었으며, 40세 이상은 작업장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근무업종에 따라서는, 자동차 정비와 용접작업자들은 안전 및 능률향상을 위해서 작업복을 착용하며, 반면에 선반 및 기계조립과 기계 및 전기 설비 작업자들은 작업장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착용하였다. 작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5명 미만의 작업장에서 안전 및 능률 향상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복을 착용함을 알 수 있었다.

4. 작업복의 관리도에 있어서는, 작업복의 오염부위로는 상의는 앞단과 소매끝, 하의는 무릎과 엉덩이 부위의 오염이 제일 많았다. 작업복의 손상부위로는 상의는 소매와 소매끝, 하의는 무릎과 지퍼부위 손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복의 세탁 방법은 물 빨래가 대부분이었으며, 세탁횟수는 평균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